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이천 년 전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마태 19,16)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과 취업준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 냉담 청년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2차 교구 시노드(2011.4.8~2012.10.28)는 첫 번째 주제로 ‘젊은이 복음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의 미래인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젊은이 사목에 교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청소년 사목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케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첫째 사도입니다. 청소년들이 친구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평신도 교령』, 12항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전승되어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리지식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개인 신심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본당과 학교의 가톨릭 학생회나 소공동체, 가톨릭 동아리 등 신앙공동체의 활동을 통하여 기도와 전례, 봉사와 친교, 선교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차 교회를 이끌어 나갈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제2차 교구 시노드 교구장 교서 『새 시대 새 복음화』, 7항 참조).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생일이나 영명축일, 조상의 기일 등 가족의 기념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기도함으로써 가정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당의 전례적 축제나 다양한 행사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등 가정공동체와 본당공동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교회의 신앙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당은 기존의 주일학교에서 더 나아가 ‘지역 청소년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한 본당 정도는 형편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교회를 가까이할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를 해야 하겠습니다(『새 시대 새 복음화』, 8항 참조).

교구에서는 ‘2017년 청소년 윤일축제’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며 청소년들의 1기도 1실천 운동,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Youth Helping Youth)운동을 전개하며 가톨릭학생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 축제 등 청소년을 위한 행사들을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일학교와 다문화 주일학교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서도 위탁 교육 센터와 특별교육 이수기관, 대안학교 운영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청년사목의 목표 역시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함으로써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대구대교구 「청년사명문」, 참조). 이를 위해 제2차 교구 시노드는 본당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새 시대 새 복음화」, 23항 참조). 본당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을 위한 본당의 사목 조직으로서 청년사목에 헌신할 위원들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신앙적 요구를 파악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사목적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구 청년국에서는 젊은이 성령기도회와 세미나,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선택 주말, 비다 누에바(청년 신앙 쇄신 프로그램), 청년 리더십 등 많은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본당에 보급함으로써 본당 청년 사목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사목은 청년사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분야입니다. 대학생사목은 군인사목과 더불어 청년사목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에 소홀했던 학생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대학입니다. 우리 교구 관할 구역 내에는 4년제 대학이 19개, 전문대학이 16개, 총 35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생 사목 전담 사제를 많이 확보하여 각 대학별로 찾아가 가톨릭 학생회를 조직하고 청년 신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새 시대 새 복음화」, 24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7월 28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31회 세계청년대회 환영행사에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공허한 스텔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의미와 충만감을 주는 힘을 느끼고 있습니까? 충만함을 찾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삶의 진정한 열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젖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고개를 들고 말씀하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현실을 외면하거나 불안과 고난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기운으로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구민들이 기도하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16년 11월 27일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 큰 사랑의 타대오



문종배 베네딕도 신부 | 구평본당 주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오늘부터 교회는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기다리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대상에 따라 마음가짐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전례는 두 주간에 걸쳐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깨어 준비하며, 회개의 삶을 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의 신앙생활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내적·외적으로 깨어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노아 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사람의 아들도 이처럼 올 것이니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노아 시대에 40주야 동안 비가 내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기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비난과 야유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회상을 통해 세상일에만 몰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향락에 안주하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말과 최후의 심판은 이처럼 엄중하게 내려질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머물러 있는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성사 생활과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와 배려 그리고 섬김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며 하느님 앞에 깨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는 맘으로 세상의 일보다도 하느님의 일을 먼저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쁨과 평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대림 시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실망스런 날들에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 | 비산본당 주임

올 11월은 유난히 을씨년스럽네요. 쌀쌀한 바람에 낙엽이 떨어져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여 여성 특유의 친화력으로 국민들을 이끌 것이라 기대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녀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4년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그녀가 이러한 선언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는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찬 최순실의 꼭두각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그 일당에 둘러싸여 귀와 눈이 막혀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국민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박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들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 선거전 때 국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꿈만 이루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외쳤던 그녀는 국민도 속이고 하늘도 속이려고 했던 “참 나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괴감과 실망감에 빠진 국민들이 어찌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무교라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은 고교시절 율리야나란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심여고에서는 수녀들로부터, 서강대학교에서는 신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고 참 희한한 사람들과 함께 사육과 탐욕에 빠져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루 말 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쳤으며,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진심어린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무덤에 회칠만 하는 참으로 실망스런 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망스런 대통령과 함께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보다는 당리당락을 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을 밝혀든 국민이든 그렇지 않은 국민이든 갈수록 꼬여만 가는 현실의 모습에 자괴감만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이 진솔한 고백을 하고, 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기에도 벅찬 이 시대에 또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찬 바람이 부는 길거리로 나서야 하니까?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은 애국심을 발휘할 수는 없는가요? 하느님,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찬 바람 부는 길거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주소서. 아멘! 

교회에서 비롯된 교회 문화

크리스마스트리로 쓰이는 나무

대림과 성탄 시기가 다가오면 백화점을 비롯한 상점가와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전구들과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더해진 크리스마스트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트리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맘껏 즐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600년경을 전후해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의 각 지방에서는 성탄대축일이 되면 성당 앞 정원에서 낙원극을 공연했는데 에덴동산의 '생명 나무'(창세 2,9)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품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상록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크리스마스트리는 성탄절 풍속의 하나가 되었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1891년 처음으로 백악관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리는 전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마스트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마스트리의 95%를 차지하는 한국의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의 상록침엽교목으로 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500~2,000m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나무라서 서양에서는 한국의 전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상나무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된 데에는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구와도 연관이 있는데, 1922~1951년까지 대구 성유스티노신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셨던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에밀 타케(Emile Taquet, 한국명 엄택기, 1873~1952) 신부님에 의해 이 구상나무가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식물학에 관심이 많았던 신부님께서는 1907년에 한라산에서 채집한 구상나무의 표본을 미국 하버드대 아놀드 식물원에 보냈는데 뒤늦게 연구가 시작되어 1920년에 세계 식물학계에 신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대구대교구청 내 성직자 묘지에 묻혀 계신 에밀 타케 신부님은 1898년 선교사로 한국을 찾아 1952년에 선종하시기까지 경상도와 제주도 일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최근 식물학계에서 왕벚나무가 일본산이 아닌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 식물 연구사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신 에밀 타케 신부님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교구청 내 안익사 옆과 대건관 옆에는 신부님께서 심으신 왕벚나무가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구대교구청**



교구 행사

■ 자비의 희년 폐막미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희년(2015.11.8.~2016.11.20.)' 폐막미사가 11월 20일(일) 오전 11시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제8회 성경암송발표대회



사진제공 : 월간(빛)

제8회 성경암송발표대회가 11월 19일(토) 오후 2시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 흥해성당 견진성사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는 11월 20일(일) 오전 10시 30분 흥해성당에서 59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다.

2017 신앙다이아러리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 2017년도 대구대교구 신앙다이아리가 출시됩니다.

판매가: 12,000원 /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깨어 있어라(마태 24,42)

박성규 엘리시오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앞으로 미사에 일찍 와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겠습니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2월 3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11월 28일(월) 11:00 수성성당	발달장애아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12월 4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대리구 소식

VIA(복음 묵상 나눔집) 가해 출판

주일미사 준비와 나눔을 위한
복음 묵상 도움집
신청: 1대리구청, 426-7200

성소 | 피정

첫토요일 성모 신심 소피정

일시: 12.3(토) 10:00, 진량성당
내용: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버스운행: 2호선 영남대역
(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금요 은혜의 밤과 함께하는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2.2(금) 21:00~4(일) 13: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피정의집)
강사: 두현자(의정부 성령봉사회 회장)
대구성령봉사회 기초봉사자교육
일자: 12.11(일) / 신청: (054)954-0951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기간: 12.23(금) 16:00~25(일) 13:30
장소: 성베네딕도왜관피정의집
피정비: 15만원 /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54)971-0722 / (010)9877-4739

교육 | 모집 | 기타

폐제 축복의 밤

일자: 12.10(토), 예수성심시녀회 성당
내용: 17:00 뷔페, 18:00 폐제의 밤
회비: 1인 6천원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010)9286-2247

바오로딸 범어서원 개원

개폐시간: (화)~(일) 11:00~19:30
공휴일 13:00~19:30, 월요일 휴무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지하 2층
주차장 입구 오른편
문의: 744-5185

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폭력·학대 행위자 상담, 가족
상담 등 / 대상: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상담전공자
문의: 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8-3778 / 638-8778

대구가톨릭치매센터다 입소어르신 모집

내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곳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위치: 달성군 논공읍
문의: 615-2141 / 616-2141~2

양로시설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행복한 공

동체, 매일 수도권 미사참례
하느님나라 복지의집 1인 1실입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문의: 성모애덕의집, (054)976-6219

제26차 청소년 영성포럼

개인주의 영성시대의 종교

일시: 12.11(일) 13:30~19:30
장소: 삼성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다음카페: 우아정 참초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대상: 만15~30세 남자, 1년(기계가공)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고검반운영, 인성교육, 교육·기숙비무
료, 수당지급, 취업알선, 방통교편입학
지도, 면접전형 / 문의: (02)828-3600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에플비뇨기과
www.appleuro.com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진단·렌즈삽입·노안수술·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종원(소시모)
현.연세대외래교수
☎(053)626-8881~5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백 신경외과 의원
16년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주)김스여행
성모님의 걸음걸음
스페인/포르투갈 12일,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월 5일, 12일 출발
☎ 1544-4655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양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27일(일)은
(故) 박형진(아우구스티노) 신부
선종 3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제28회 대구가톨릭음악원 성음악 발표회

일시: 12.2(금) 19:30
장소: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6회 7080 밥콘서트

일시: 12.10(토) 17:00
12.11(일) 14:00, 17:00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 1만원
후원: 매일신문, 교구 청년국
문의: (010)9577-7819 / (010)4509-7016

교육 | 모집

제5회 YHY해외봉사활동

기간: 2017.2.13(월)~21(화) 8박 9일
장소: 베트남 호치민 일대
마감: 12.30(금)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37
참조: www.jesusclub.or.kr

관덕정 영성 특강

일시: 12.3(토) 16:00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강사: 원종현(야고보) 신부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12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2.10(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행복을 찾아가는 길
강사: 신달자(엘리사벳)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가대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포함)
음악원(4·6·8주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모집: 12.23(금) / 문의: 660-5554~6
http://conedu.cu.ac.kr

채용 | 안내

중방성당 사무장 채용

문의: 812-1966 / (010)3810-6858

(복)테레사소비센타 관리부 여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해당자)
마감: 12.31(토) 내사접수
문의: 765-150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지영, 이상연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17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7년도 대구주보 광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차 순번추첨: 11.28(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2 차 순번추첨: 11.28(월) 13:00 (당일 서류 제출 업체 대상)

※ 주보 광고 순번추첨일이 11.21(월)에서 11.2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리배정을 문화홍보실에 일임하는 위임신청제는 접수 당일 광고 신청 배정 후 남는 자리에 사전서류접수 순으로 배정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대구가톨릭평화방송(FM 93.1) 12월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신부님과 신자들이 직접 출연해 들려주는 우리본당 이야기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방송시간: 매주 토 오후 6시 5분~7시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12월 3일 진량본당	12월 10일 군위본당	12월 17일 왜관본당
-------------	--------------	--------------

결혼명가
노블코리아
중신 잡하는 집!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 053)639-8998
박옥순(요안나) 영주(절마)
동대구역 신세계 부띠끄시티II 드라마동 10층 14호

백두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아개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람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박연신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마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산부인과
최초 전문 산부인과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